

# “불 난적 없는 데...” 안전불감 전통시장

### 광주·전남 '화재안전진단' 보고서 보니

### 소화·경보·피난 시설 등 설치율 평균 17% 그쳐 시장 활성화 돈은 평평 쓰면서 안전예산은 '뒷전'

전통시장의 열악한 안전 관리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찾는 전통시장에서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피해를 막는데 갖춰야 할 비용이 1억9000만 원인 것으로 예상되지만 '살마'라는 인식에 밀려 선향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전통시장 화재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전통시장 137곳 중 19곳(점포수 2064개)의 소화(19.88%)·경보(18.96%)·피난(10.88%)·상수도 소화설비(3%), 전기(37.50%)·가스 시설(13.75%)의 평균 설치율은 17.33%에 불과했다.

점포 대부분이 자동화재·속보탐지 및 비상벨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전기·가스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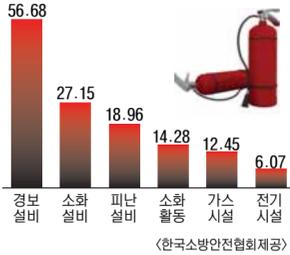
설령 또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했다더라도 노후 등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불량시설은 27.94%에 달했다.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설치된 화재안전 시설 10개 중 8.2개는 불량이라는 것이다.

시설별로는 소방시설이 6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보설비(56.68%) ▲소화설비(27.15%) ▲피난설비(18.96%) ▲소화활동(14.28%) ▲가스시설(12.45%) ▲전기시설 불량(6.07%) 등이다.

전기설비에 피복이 벗겨져 있고 자동화재탐지기가 작동되지 않는가 하면, 유도

#### ■ 광주·전남 전통시장 19곳 화재안전시설 불량률 (단위: %)



〈한국소방안전협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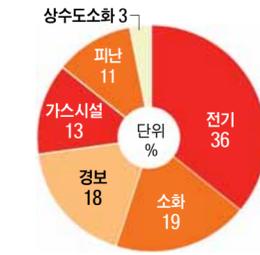
등과 피난로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등 한 번 불이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전통시장 19곳에 대한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상보수비용을 1억 9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쏟아부은 돈만 수십억원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지역 137곳 중 이번엔 조사한

#### ■ 광주·전남 전통시장 19곳 화재안전시설 설치율



19곳 전통시장만이라도 예산을 긴급 투입해 화재안전시설에 대한 보수작업과 함께 전통시장 위험등급제·정책성 보험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 들어 지난 8월 31일 현재 광주지역 화재경계지구(시장지역 기준)는 대인시장과 양동시장 및 양동복개상가 주변 등 2곳으로,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이 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모두 19건에 달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9    해질 17:57  
 일출 00:00    일몰 13:31

낮에도 선선해요!  
 대체로 맑고 아침 일부지역은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 ◇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11/20	보성	맑음	6/20
목포	맑음	13/19	순천	맑음	10/21
여수	맑음	12/21	영광	맑음	11/19
나주	맑음	8/21	진도	맑음	8/19
완도	맑음	11/20	전주	비온뒤 맑	10/19
구례	맑음	7/21	군산	비온뒤 맑	9/19
강진	맑음	7/20	남원	맑음	7/19
해남	맑음	7/20	흑산도	맑음	16/18
장성	맑음	7/20			



### ◇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서~북서	0.5~1.5	북서~북	1.0~2.0
	면바다	서~북서	1.0~2.0	북서~북	1.5~3.0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1.0	북서~북	0.5~1.5
	면바다	서~북서	0.5~1.5	북서~북	1.0~2.0

### ◇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7:10	20:07	00:39	12:31
여수	08:08		01:38	
	21:58		15:06	

### ◇ 주간 날씨

날짜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23(목)
날씨	☀	☀	☀	☁	☁	☀	☀
날짜	9/22	9/23	9/24	10/22	10/23	10/24	10/25

### ◇ 생활지수

식중독	44
운동	70
빨래	90

## 여자친구 납치 도주 육군하사 진도서 잡혀

육군 하사가 만남을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납치해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진도에서 검거됐다. 해당 부대는 추적 과정에서 납치 사건 연루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하루 뒤야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진도경찰은 15일 여자친구를 납치해 승용차에 태워 도주한 혐의(강간 등)로 경기도 모 부대 소속 정모(24) 하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 하사는 지난 14일 새벽 5시께 여자친구 A(21·서울시 강동구)씨 집 창문을 열고 침입해 납치한 뒤 차량에 감금해 진도까지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 하사가 15일 오후 1시께 진도군 임회면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잠든 사이 차에서 탈출, 현지 주민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정 하사는 막다른 길목인 저수지 등에서 차를 돌리려다가 물에 빠졌고 신고 후 30여분 만인 1시 35분께 체포됐다.

경찰은 정 하사가 1년여간 사귀던 여자친구가 최근 만남을 거부하자 지난 14일 새벽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정 하사의 신병을 헌병대에 인계할 방침이다.

김현호기자 khh@/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복합재난대비 훈련 15일 오후 광주대학교에서 남구청 및 남부소방서 등 16개 기관 단체가 동참한 총무훈련 및 재난대응 훈련에서 참가자들이 복합재난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말만 앞선 영산강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 토지 매입 등 10여년간 진척률 35.7%에 그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수질 보전을 위한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벌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조성사업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5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지

난해말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진척률이 35.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영산강청의 경우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하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변 토지 1467만2000㎡를 2002년부터 사들였고 3년 뒤부터 1017만8000㎡에 습지를 조성하거나 수목을 심는 등의 사업을 벌여왔다.

영산강청은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전체

사업대상지의 35.7%에 불과한 362만9000㎡만 조성하는데 그쳐 수변 생태 보호에 대한 의지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석현 의원은 "오염원 차단 위해 수변 구역에 습지를 조성하거나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환경청은 땅만 사놓고 내버려두고 있다"면서 "수변벨트 조성 취지를 감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공무원이 업자에 빌렸지만 뇌물로 봐야”

### 법원, 여수해경 방재담당 직원에 징역형 선고

여수해경 방재담당 공무원이 20년 넘도록 알고 지내는 방재업체 대표에게 빌렸다는 돈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게 국민배심원들의 의견이었다.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부장판사 마옥현)는 15일 방재업체 대표로부터 방재업무에 참여토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여수해경 소속 7급

일반직 공무원 A(51)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돈을 건넨 B(59)씨도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국민배심원 9명 중 6명도 징역 2년 6월이 적절하다는 양형 의견을 냈다. 징역 3년이 적절하다(3명)는 의견도 나왔다.

양형으로 보면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주

장했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지 않았고 다만, 부인의 가게 개업을 앞두고 2000만원을 '차용'한 적은 있다'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와 국민배심원들의 판단이었다.

한편, A씨는 2008년 9월께 B씨의 사무실에서 해상 방재업무에 참여토록 도와주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전 세대 남향배치**    **총228세대 | 전용면적 57㎡**

비엔날레공원에서 누리는 분양같은 임대아파트!

# 용봉동 도나우타운

- ✓ 입주 전 베이비루트 실시
- ✓ 주방·욕실 천장에 매립형 풍환시스템 설치
- ✓ 건식 욕실, 환풍기 타이머스위치 설치
- ✓ 1층 필로티 구조
- ✓ 에어컨 등 화장실 전용 출입문 설치
- ✓ 인방 불박이장 설치
- ✓ 주출입구 차량통제 시스템
- ✓ 전세대 확장형
- ✓ 전세대 LED조명 설치
- ✓ 홈오토시스템

문의062  
**264-7789**

M/H 전대사거리 모야엘가 주택전시관 2층

**10월17일 OPEN**    **오피스 김장훈팬사인회**